

# 조세혁, 또다시 세계 정상에 우뚝

지난 7월 윈블던 테니스 우승 후  
에디허 14세부 男단식 정상 차지

한국 테니스 유망주인 조세혁(남원거점스포츠 클럽)이 지난 7월 윈블던 대회 우승 이후 또다시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조세혁은 최근 미국 플로리다주 브래드튼 IMG아카데미에서 열린 에디허 14세부 남자 대회 단식 정상에 올랐다.

결승에서 조세혁은 키톤한스(미국)를 2-6, 7-5, 6-2로 물리쳤다.

키톤한스(미국)를 상대로 첫 세트에서는 긴장속에 스트로크가 난조를 보이면서 어려움을 보였고 2세트부터는 장기간 강한 서브와 스트로크로 상대를 흔들고 안정된 디펜스로 큰 어려움 없이 세트스코어 2-1로 역전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7월 윈블던과 프랑스 독일 대회 등을 제패한 조세혁은 최근 기량이 급 상승세를 타고 있고 세계 테니스 유망주 주니어들이 참가해 부어 대회의 응용문으로 불리는 역사와 전통이 숨쉬는 에디허 대회 남자 14세부에서 우승하는 기쁨을 맛봤다.

조세혁은 경기 직후 "3년전 12세부를 참가해 복식 우승후 이 대회를 다시 뛰게되서 매우 기쁘고, 세계 선수들과 함께 경기에 볼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되었고 우승까지 할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며 "이 대회에 참가할수 있도록 후원해 주신 전북체육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한국에서 응원해 주신 부모님과 전북협회 김우연 회장님께도 감사한다"고 말했다.

한국 주니어선수들이 대거 참가하고 있는 에디허 대회는 오펜지빌과 함께 주니어 테니스 대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회로 로저 페더러(스위스), 마리아 샤라포바(러시아)와 같은 스



한국 테니스 유망주인 조세혁이 지난 7월 윈블던 대회 우승 이후 또다시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조세혁은 최근 미국 플로리다주 브래드튼 IMG아카데미에서 열린 에디허 14세부 남자 대회 단식 정상에 올랐다.

타 선수들도 주니어 시절 에디허 대회를 발판으로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했으며 한국선수로는 2008년 정현 12세부 우승, 2016년 강건욱

12세부 우승, 2012년 강구간이 16세부에서 우승한 이후 조세혁 선수가 우승했다. /김경수 기자

## 체육진흥 노력 '인정'

순창군, 스포츠산업대상 우수지자체상 수상  
마케팅·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결실맞여

스포츠의 메카 순창군이 전국 무대에서 스포츠산업의 최강자임을 인정받았다.

순창군은 5일 오전 서울올림픽공원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제18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지방자치단체상을 수상했다.

스포츠산업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하며 스포츠 분야에서는 가장 권위있는 상이다.

이번 상은 전라북도 내에서는 2010년 군산시가 수상한 이후로 12년 만에 순창군에서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됐다.

순창군은 전라북도의 추천을 받아 엄격한 1차 서류심사와 2차 프레젠테이션 심사, 국민 공개검증, 문화체육관광부 공적심사를 모두 통과해 최종 선정됐다.

군은 심사 과정 중 코로나19로 인한 스포

츠산업의 암흑기 중에도 보여준 스포츠강역단 구성, 철저한 차단방역을 통한 성공적인 스포츠대회 개최, 타 시군에서 취소된 스포츠대회를 유치해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열정을 높게 평가받았다.

또한 직장운동경기부에서 남자 소프트테니스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역도팀 이후에는 여자 소프트테니스팀 등을 잇달아 창단하는 등 전문 체육 진흥에서 노력하고 있는 점 등에도 공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순창군이 보여준 스포츠산업에 대한 노력이 이번 수상을 통해 인정받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앞으로도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경제성화를 위한 체육정책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태권도 보급과 진흥을 위해 세계 각국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원로사범 등 해외 태권도 관계자 15명이 태권도원을 찾았다. (사진=태권도진흥재단 제공)

## 해외 태권도 관계자들, 태권도원 방문 줄이어

미국·멕시코·콜롬비아 등 10개국 15명 방문 태권도 발전 협의

태권도 보급과 진흥을 위해 세계 각국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원로사범 등 해외 태권도 관계자 15명이 태권도원을 찾았다.

이들은 '바로 바라간'(Varo Baragan, 파나마) 전 권임연맹 회장, '오스카포사다' 국제심판(Oscar Posada, 콜롬비아) 등으로 지난 2일 태권도원에 도착해 국립태권도박물관을 비롯한 태권도원에 도착해 국립태권도박물관을 비롯한 태권도원에 머물렀다.

5일 태권도진흥재단 오승환 이사장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인도 '아베 파토올(8단, Abhai Singh Rathore)' 사범은 "한국의 발전은 태권도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인도에서도 태권도 정신을 널리 알려 인도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며 태권도 관련 협력을 요청했다.

또한 미국 준 리(9단, Jun Lee) 사범은 "태권도원과 같은 시설이 있다는 것에 대해 가슴이 벅찰 정도로 자랑스럽다. 태권도원에 머무르는 동안 대한태권도협회 체육영재 훈련, 장애인 태권도 신인선수 훈련, 심판자격연수 등으로 태권도원을 가득 메운 태권도인들을 보며 태권도의 밝은 미래를 생각했다.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고국에 돌아가 태권도와 태권도원을 알리는데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고 말했다.

태권도진흥재단 오승환 이사장은 "세계 각국에서 태권도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분들이 태권도원을 방문해 주셔서 기쁘다"며 "우리 재단은 국내외 태권도 진흥과 발전을 위해 앞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더욱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완주 개최 '테니스 페스티벌' 성료

대한테니스협회(회장 정희균)가 전국적인 테니스 열풍 속 '2022 테니스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대한테니스협회는 지난 2~4일 완주군청 테니스장에서 테니스 승강제(T4)리그 챔피언십 '과·유·청소년 테니스 리그 페스티벌'로 구성된 테니스 페스티벌을 진행했다.

생활체육 최강 팀을 가리는 승강제리그 챔피언십에서는 각리그 우승팀 중 시도 대표로 선발된 32개 팀이 참가해 치열한 승부를 펼쳤다.

3복식 단체전으로 진행된 본선 토너먼트 결과 전북 지역의 대봉 A팀이 경남 지역의 양산 팀을 꺾고 초대 챔피언에 올랐다.

우승을 차지한 전북 대봉 A팀은 "1-4로 지고 있어서 역전할 줄 몰랐는데 우승해서 정말 기쁘다. 실력에 상관없이 서로 공을 쳐주는 등 팀워크가 좋다. 올해 테니스 승강제리그가 시작되었는데 접근성도 좋고 여러 지원이 많아서 동호인들의 관심이 높다. 내년에도 참여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 남원 곳곳 스포츠대회 개최 잇따라

동호인골프·춘향배 시니어 배구  
시장기 배드민턴대회 등 성황리

추운 겨울이 되었지만 스포츠 명품도시 남원은 잇따른 체육대회 개최로 여전히 바쁘다.

지난 2일에는 제11회 남원시장배동호인골프대회 3일에는 남원춘향배 시니어·실버 전국 남녀 배구대회, 4일에는 제17회 남원시장기 배드민턴대회가 체육인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 성황리 개최되었다.

남원 골프장카운티 드래곤에서 열린 제11회 남원시장배동호인골프대회는 골프 동호인 250여명이 참여하여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쳤다.

이어 남원춘향골체육관에서 열린 남원춘향배 시니어·실버 전국남여 배구대회에는 전국 18개 시군에서 24개팀 800여명의 배구 동호인들이 참여하여 열띤 경쟁을 펼쳤다.

또한 남원춘향골체육공원 배드민턴구장에서



지난 3일 열린 남원춘향배 시니어·실버 전국 남녀 배구대회.

열린 제17회 남원시장기 배드민턴대회는 250여명의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참가했으며, 남자복식·여자복식 종목에서 연령별, 급수별로 나누어 열띤 서투록 대결을 펼쳤다.

최경식 남원시장장은 "체육대회를 통해 모두가 함께 즐기고 화합하는 자리가 됐기를 바란다"며 "다양한 종목대회를 열어 전국의 동호인들이 참여하는 명실공히 명품 스포츠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sup>2</sup>,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